

# 2019

친절한 설명씨



## 2019년,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2019'라는 숫자도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한 책에서는 소위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2019년 트렌드 키워드들의 앞글자를 따서 'PIGGY DREAM'이라는 슬로건을 꾸려내기도 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와 트렌드를 만나보자.

퀀텀점프

: Quantum Jump

퀀텀점프(양자도약)란 본래 물리학에서 양자가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단기간에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 및 발전하는 경우를 이르는 용어로 사용된다. 연속적 성장곡선을 그리는 대신 갑자기 다음 단계로 뛰어 오르는 모습에서 퀀텀점프를 연상시킨다.

유니콘 & 데카콘

: Unicorn, Decacorn

두 용어 모두 뿔이 달린 상상의 동물에서 유래했다. 뿔이 하나인 유니콘은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편 데카콘이란 뿔이 10개인 동물로, 유니콘의 10배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국내의 경우 유니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쿠팡이 있으며, 데카콘은 우버, 에어비앤비, 샤오미 등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멜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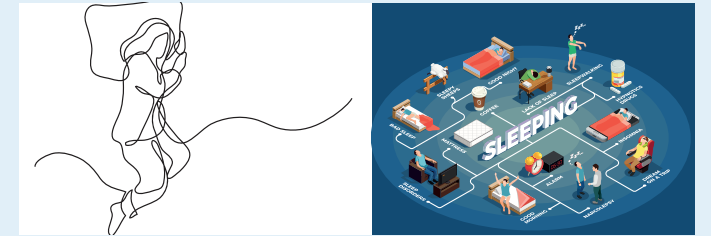
: Chameleon zone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화하는 카멜레온처럼, 필요성이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소비 공간. 한 가지 용도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 다른 업종과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공간이나, 체험형 공간을 일컫는다.

티핑포인트

: Tipping Point

본래 역학에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수를 이루는 시점을 말하며, 경제학자 토머스 헤이건 자신의 '티핑 이론'에서 사용했다가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 동명의 저서를 출간하며 대중적으로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경제학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을 말하기도 하며, 스타트업에 있어 티핑포인트란 기업이 갑작스럽게 호조를 기록하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슬리포노믹스

: Sleeponomics

수면 부족이나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시장 및 관련 산업 전체를 일컫는 말. 작게는 숙면을 위한 제품에서부터 크게는 쪽잠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양질의 수면을 도출할 수 있는 앱 및 코디네이팅까지를 포함한다.

젠더 뉴트럴 뷰티

: Gender Neutral Beauty

페미니즘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점차 대두하면서 강조되는 단어로 기존에 남, 여로 구분지어져 있던 외부 이미지 및 역할을 무화하고 '사람'으로서 개인을 정의한다는 뜻을 지닌 개념. 패션 및 미감에 있어서도 어느덧 이 같은 경향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필환경

: Eco-Essential

지구 기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마주하면서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필환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소비자는 주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는 경각심 있게 소비하며,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기를 선택한다.

AI-주도 개발

: AI-Driven development

ICT 전문 글로벌 자문기업 가트너가 발표한 '2019년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에 따르면 AI기반 개발 툴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AI-주도 개발'이 2019년 트렌드로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가트너는 이 방식이 본격화되면 개발자들이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 데이터 분석 툴을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자기 서비스의 활용도와 개발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팔로인

: Follow+인

온라인 매체에 만연한 정보를 가장한 광고와 가짜 뉴스를 선별하다 지친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주는 정보를 따르려는 경향.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력과 정직성을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나와 같은 취향을 지녔거나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①